

‘그냥’이 아니라 왜?

유희린.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김 수염이 떠오르지도 하지? 정말 그렇게 수염을
같이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 길을 걸어가 있었단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아이는 할아버지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 수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대.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죽을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넣었죠, 아니면 꺼내 놓나요?” 할아버지는 “예기!
이 배를 찔러 놓.” 하고 소리 지르다가 땀 자기도 금금 흘렸단다. 왜냐면 수염을
기른 채 몇십년 동안이나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한번도 그런 궁금증을 지녀 본 적이
있었거든. ‘허어, 그리고 보니 내가 수염을 꺼내 놓고 잤나, 넣고 잤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쏭달쏭 하기도 한 해지. 결국 할아버지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글쎄다. 허 참 이녀석, 별길나 묻는구나. 정글정글하면 말이지,
오늘밤에 한번자 보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 주마.”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이불자리를 파고 두었지. 우선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말아야, 그런데 너무 겁깝하고
거북해서 아무래도 수염을 밖에 내놓고 자야 할까 겁있어. ‘음지!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고 눈을 감아 봤어. 그런데 불쾌한건 마찬가지였어. 이불 밖으로 꺼내 놓은
수염 때문에 왠지 허겁하고 설렁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게 안났던거야.
아무리 자려해도 잠을 이루 수가 없었지. 수염을 이불로 얹으니 겁깝하고 이불 밖으로
꺼내 놓으면 허겁하고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꺼냈다
하느라고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단다. 물론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가르쳐 주겠노라고
했던 아이와의 약속도 지켜 주었지. 이상한 일 아니? 음명 그건 할아버지 자신의

수염이고, 할아버지는 몇십년동안 하루도 배설적 않고 잠을 잤는데 알아야. 그런데도 아이가
 묻기전까지 그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자는지 기억할수가 없었던거야.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볼수도 없는 도둑이었어. 물어보다 한들 누가 자르쳐 줄수도 없는 문제잖아
 정말 답답하고 기막힌 일이었지. 그뒤로 할아버지는 밤마다 수염때문에
 편하게 잠을 잘수가 없었어.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못넘길 일이야. 가만 생각해보
 려. 혹시 너에게도 그런 수염이 있는지 알아. '아들한테 무슨 수염이있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두가 질문할때가 가끔 '그냥' 이라고 대답한 적이있을거야
 바로 그 '그냥'이라는 말이 내 수염야. 아직도 잘 모르겠사오니 우리아무생각없이
 '그냥' 지내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치고, 그냥치고, 그냥초반 말이야. 어떤때에는
 눈이 와서 꽃이 피어도, 아침이 되어 찬란한 대양이 떠올라 아무것도없는이광
 흥있고 지나쳐버리기도 하지 새들이 어떻게 짹지며 날카고. 그늘이
 어떻게 보였다가 흩어 지는지 몇번이나 눈여겨 보았니? 남들에게 금금한 말을 몇번이나
 질문해 보았니?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라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그냥했잖아
 있었니? 자기한테 물어볼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사람은 전전지를
 넣고 단락을 흐르인 그냥 복은 체대는 공인형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아무생각 없이 모든 순간을 순조롭게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야기속 할아버지와 똑같아 자기것이지만 자기것이 아닌 수염을 달고있다면
 알아야. 그냥수염을 달고 있는 사람은 어느날누가 '왜?' 또는 '어떻게?' 하고 물으면 아무
 대답도못해. 아무리 자기가한일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내려안에서도 지나온것은이런지 사라져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길이없다싶어지지. 어느날엔가 너한테 누군가가 물어올지 몰라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냥' 이라는 대답이 어떤무언가를 준비해야겠지?